

인간의 탐욕이 빚은 비극: 기후변화

신혼 부부 사이에서 각광받는 신혼여행지인 몰디브의 수도 말레는 몰디브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여만명이 살고있는 도시 섬이다. 하지만 이곳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지구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은 연평균 3.2mm정도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2.5m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비단 몰디브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도서국가인 투발루 또한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의 9분의 2에 해당하는,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이 이미 물에 잠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국토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투발루는 지난 2001년 국토 포기를 선언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바다와 접해 있는 국가들만 이러한 피해를 입는것일까? 대륙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기온의 변화와 이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지속적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가뭄과 홍수는 특히 농업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근간 자체를 위협한다.

나사의 2017년 1월 발표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 지구의 온도는 매년 기온이 상승하여 16번이나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나사의 기후학자 개빈 슈미트는 "지구 기온 상승의 80~90%는 장기적인 경향이며 오직 10% 정도만이 엘니뇨(적도 해수 온 상승)와 같은 자연적인 가변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 경향'이란 인간의 석유, 석탄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가 야기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의미한다. 2016년 10월에 발표된 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의 '기후 관련 재난의 인간비용 1955~2015' 보고서에선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6457건에 달하는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고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도 41억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가지는 의미는 각 별하다. 이 협약은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졌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8월4일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서 파리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정에 소극적이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탈퇴 선언에 힘입어 줄줄이 빠져나오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